

나의 데오빌로는 어디에?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능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개역, 누가복음 1:1~4]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개역, 사도행전 1:1~2]

대 학교에서 가끔 만나기 힘든 분들을 초청해서 강좌를 열지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가서 듣고 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임이 있어도 가서 듣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체육과 학생이 그림 전시회를 열었더니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림 공부하는 학생이 그림을 그렸다면 별로 안 갑니다. 그런데 체육과 학생이 열었다니까 호기심 반, 격려 반으로 많이 갔더라입니다. 간혹 사장님이 사원들 앞에서 무슨 악기 연주를 하면 화제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이하니까요.

지난 구정 때 많이들 고향 가고 안 계실 때에 오인숙 집사님이 예배시간에 색소폰 연주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연습하는 소리가 나서 올라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 집사님이 악기를 조금 만지는 줄은 알았는데 색소폰을 그렇게 잘 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조 집사님, 퇴직해도 먹고 살 일은 걱정 없겠네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빨간 모자 하나 사 쓰고 매니저하며 따라다니면 될 거랍니다. 본인의 본업과 좀 다른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본업 놔두고 여가시간에 저 정도 하려면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하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더 보이는 거죠.

본업 외에 부업을 하나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본업은 돈 버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부업은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점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능직 홀리클럽 창립 2주년 기념 예배 중, 경과보고를 지켜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밤늦게까지 헌신하는 그 분들의 활동상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 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 그 연장을 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섬기는 것이 참 감동을 줍니다.

때로는 부업이나 취미삼아서 하던 일이 결국은 본업이 되어버린 예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람에 본업을 팽개치고 부업이 본업처럼 되어버린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본업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불러 가서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 때문에 골리앗과 붙어 버린 겁니다. 그 길로 장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길로 나서게 된 계기는 골리앗이 외쳐대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를 건널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그 열심이 그를 위대한 장군, 나아가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갔던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모세의 출신은 뭘니까? 왕자라고 해야 됩니까? 목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40세까지는 왕자로 자랐지만 40세 이후부터 80세까지는 늙은 목자, 그게 자기의 본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본업을 버리고 정작 부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대단히 많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헌신과 사랑 때문에 업이 바뀌어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브리스길라 아닐까요? 브리스길라의 남편은 요즘말로 하면 건축업자입니다. 장막을 만들어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만나서 신랑은 열심히 돈을 벌고 브리스길라는 그 돈으로 바울의 뒤를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헌신했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옛날 부인의 이름을 앞세운 것을 보세요. 본업은 살림 사는 것, 남편 돕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까? 부업에 얼마나 열심이었기에 이 부부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겠냐 말입니다.

누가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본업보다도 부업으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또 어찌다가 그리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우리말로는 누가라고 합니다만 원어식으로 발음하면 루카스입니다. 그가 어디서 출생하였고 어디서 자랐습니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얼마의 나이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번 나오는 것이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다 쓰고 마무리할 쯤에 '바울의 동역자 누가'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세 번 정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의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정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시작할 때에 '내가'라고 말했지만 중간쯤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중간 중간 나옵니다. 그 표현이 나오면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가 어떻게 하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고 바울에게 의사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에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에 구금되었을 때 같이 있었고 로마로 갈 때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누가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밖에는 성경에 누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우리는 왜 누가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할까요? 그것은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책 두 권이 누가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와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진짜 위대함은 광야 40년 동안 꼼꼼하게 글을 쓴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유심히 보면 정말 잘 썼다는 감동이 옵니다.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가 없이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줄줄 이어나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능해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다섯 권의 책을 빼고는 기독교의 성립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글을 남겼는지에 대한 감동이 좀 있어야 합니다. 민족을 이끌어 가며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을 이끄느라고 정말 수고했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서 전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실제로 행했던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위대함도 비슷합니다.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가운데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로 번져 나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이야 흔적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그가 쓴 글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요! 이들이 쓴 기록은 그들이 살아 생전에 남긴 업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누가가 쓴 두 권의 책이 누가가 살아서 이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신약에서 많은 기록을 남기기로는 권수로 일등은 바울입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히브리서를 빼고도 13권입니다. 2등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러니까 다섯 권이죠? 3등은 두 권씩 쓴 사람인데 한 사람은 누가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누가는 권수로 치면 공동 3위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많은 글을 썼는지는 권수로 말할 것이 아니고 쪽수로 말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단독 1위 바울은 114쪽인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놀랍게도 108쪽입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권수로 쳐서 절반입니다. 분량으로 치면 사분의 일 조금 넘을 거예요. 쪽수로 계산하면 누가가 단독 2위입니다. 3위는 요한이 되고, 4위는 마태입니다. 권수로 해서 공동 3위였던 베드로는 7위가 됩니다. 베드로전후서를 다 합쳐봐야 누가가 쓴 108 쪽의 십분의 일밖에 안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누가가 얼마나 많은 분량의 글을 썼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글을 쓰려면 아마 평생 걸릴는지 모릅니다.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써본 분이 압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분에 대한 글을 쓸려면 관련된 수 많은 사람

들의 증언을 들어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일일이 정돈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녹음해서 다시 정돈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옛날에는 듣고 기억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필기구나 종이는 아예 없고 양피지에 그런 글들을 쓰고 정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선생님은 아주 시간이 많아서 그 글을 썼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시간이 많아서 그 글을 썼습니까? 심심풀이로 썼을 것 같습니까?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글들을 기록하고 남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텐데도 누가는 이 막대한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 옛날부터 책 빌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책은 꼭 사서 보라고 권합니다. 책 쓴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 한권이 나오려면 얼마나 긴긴 세월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일생이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써 놓은 글을 공짜로 읽어보겠다? 양심상 그럴 수 없다면 책은 사서 보아야 합니다.

혹 어쩌다 남의 책 빌려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려다 보고 감동이 있으면 그 책을 다시 삽니다. 이 유는 글 쓴 사람에게 그렇게라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 책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책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글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함께 근무하던 어떤 선생님이 목사들이 월급이 너무 많다가에 하도 갇잖아서 몇 가지 하는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일 년 열두 달 새벽에 일어나고, 일주일에 40분짜리 설교 세 개 쓰고 짹짹막막한 것 일곱 개 쓰고...” 그랬더니 손 들어버렸습니다. 일주일에 세 편씩 설교 작성하는 일에 질려버린 겁니다. 글 쓴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인데 누가는 바울 못지않게 긴 글을 남겼습니다. 엄청나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많은 분량을 썼다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누가가 왜 이 글을 썼느냐는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더 놀랍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글로 썼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글로 썼는데 왜 또 씁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첫째 이유는 차례대로 자세히 기록할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자세히 봤더니 더 자세히 쓸 필요가 있고 차례대로 써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부터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시절 이야기도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써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데오빌로 각하로 배운 것에 그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시작하면서 글을 쓴 겁니다. 누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합니다마는 일단은 이름의 뜻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빌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레오’라는 말로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필’ 자가 들어간 단어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를 누가는 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신분상으로 일반 성도들과 쉽게 교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거나 아니면 교육적인 환경이 달라서 기존의 복음서를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겠다고 누가가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긴 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해야 합니까? 이게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경제 원리는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교육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우기 위해 최소의 투자를 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사람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 원리는 최대한 투자를 해 놓고 그 열매를 기다릴 뿐이지 그 열매도 최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 해 줍니다. 뭘 기대하면서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합니까? 나중에 얼마나 대 먹으려고요?

교육의 원리는 최대한 투자하고 경우에 따라서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위해

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자세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비경제적으로 헌신하고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나에게 있어서 데오빌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투자하겠느냐 말입니다. 말로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오래 전의 일이지만 한 500명 되는 인원이 전도를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목표를 100명 정도 잡았는데 그 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 목사님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나왔으니 우리가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위로했습니다만 이 경우엔 전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성도들이 열심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누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목표로 두고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해 낸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데오빌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스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한 두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학자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경우들을 조목조목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서에 270회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을 앉혀 놓고 가르친 경우가 70회 정도 나오는데 딱 한 사람 앉혀 놓고 가르친 경우가 63회나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 앉혀 놓고 가르친 경우가 13회나 있으니 한 두 사람을 앉혀 놓고 가르친 횟수와 많은 무리를 가르친 횟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열두 명 앉혀 놓고 가르친 경우도 있고, 조그마한 무리를 앉혀 놓고 가르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무리보다 소수의 무리를 가르친 경우가 75%정도 되더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전적으로 투자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열두 제자들에게 올인하신 겁니다. 수 많은 청중들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열둘에 나중에 바울 한 사람을 더 불러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손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데오빌로를 염두에 두고 이 긴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누가 쓴 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아시죠? 누가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고 풍성하게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하면 족보에 질려 버립니다. 그거 무슨 재미로 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럼 어디서부터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누가복음부터 읽으라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만 다이제스트처럼 요약한 것 같고 요한복음은 심오하고 우아한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써 준 이 글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풍성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에 사용되는 본문은 대부분 누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이런 기록을 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성탄절에 할 게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 정도밖에 없어요. 누가 덕분에 우리는 성탄절을 참 풍성하고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예입니다. 그만큼 누가 자세하게 글로 써서 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앞에 복음서 네 권이 있고 뒤에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서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바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때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뒤에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글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잘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갔는지, 어떻게 해서 위대한 바울이 등장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잘 보여줌으로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글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누가는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겠다고 글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생명에 관한 헌신은 때로는 엄청난 결실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생명이 귀한 겁니다. 누가에게는 정말 수고롭게 헌신해야 할 데오빌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섬겨야 할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오빌로는 제대로 믿지 않는 남편일 수 있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부인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우리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누가만큼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좀 힘들다고 때려치울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부업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가선용이나 취미로 부업을 하나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자는 겁니다. 뭘 할까요? 누가처럼 그렇게 글을 쓰면서 섬기든지, 아니면 가진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도 좋은 겁니다.

돈으로 때운다는 것을 조금 나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가진 게 돈밖에 없으면 돈으로 이웃을 섬기겠다는 것도 좋은 애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가 몸으로 때우겠다? 예, 좋은 일입니다. 무엇이었던 내가 내 정성을 다 해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웃을 섬긴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부업에서 밥하느라고 바쁜 사람들도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밥해서 먹일 테니까 너희는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 잘 하는 겁니다. 섬기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귀한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전에 제가 맡고 있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2박3일을 가르치려고 6개월을 준비했습니다. 그걸 몇 년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공부 모임들을 더러 가졌지만 그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스스로 성경 보면서 은혜받고 감동받았던 것들이 지금의 설교 밑천이 된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제 부업이었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열심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용서하십시오, 부업이 본업이 된 셈 아닙니까? 전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실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선교하러 나간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꼭 말씀만 들고 나갑니까? 요즘은 수지침 가지고 나간 분도 많고, 미용, 악기, 심지어 농사 기술 가지고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컴퓨터 다루는 재주, 노래, 심지어 운동하는 사람은 태권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것이 무엇이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귀하게 사용할지 모르니 더 열심히 배우고 열심으로 섬기자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귀하게 쓰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그 중에 제일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올지 모릅니다.

내가 섬겨야 할 나의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쏟았던 만큼의 정성, 이만큼 긴 글을 쓰려면 얼마만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글로 섬길 재간이 없으면 그걸 다른 노력으로 바꾸어서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섬겨야 할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업 하나쯤은 가지도록 하세요. 그리고 데오빌로 하나 키우세요. 가르치고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